

헬로, 도쿄 텔레포트 드림



1824온라인에세이 클럽 '아, 있다' 005

삼근삼리

00

01

사람을 죽인 적이 있다. 처음부터 죽일 생각은 없었다. 그 애를 마주친 곳이 육교였고, 하필 그 애의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 애가 돈을 요구했지만 가진 돈이 없었다. 비가 내렸고 오래 방치된 육교는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무 마감이 허술했다. 주먹이 날아들었다. 팔을 내두른 순간 천둥이 쳤다. 아니, 그런 소리가 났다. 그 애의 목이 반쯤 돌아가 있었다.

사고사였다. 기록적인 폭우에 증거는커녕 목격자를 찾기조차 쉽지 않았을 터다. 경찰은 죽은 그 애의 알코올 혈중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을 웃돈 것에 사건을 급히 마무리 지었다. 전국적으로 떠들썩한 영아 납치 사건에 경찰은 항상 손이 모자랐다. 운이 좋았다.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덩수룩하던 앞머리를 넘기고 친구를 사귀었다. 그 애가 없으니 친구를 사귀는 건 쉬웠다. 사는 건 쉽지 않았다. 그 애는 죽어서까지 날 괴롭혔다. 언젠가 경찰이 재조사에 착수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밤을 지새웠다. 눈 밑이 까맣게 죽어갔다. 번진 눈앞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 목에서 터져 나온 혈액은 선명했다. 신경이 예민해졌다. 겨우 사귀 친구들이 떨어져 나갔다.

이대로는 안 될 거 같다.
어지러웠다. 받쳐주는 것이 없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여긴 어디지.

1824온라인에세이 클럽 '아, 있다' 005

삼근삼리

00

02

우리 집, 옥상.
다리를 뻗어 본다. 허공에서 발과 바람이 불안하게 맞닿는다. 한 발 더 디더볼까. 뒤통지를 댄 왼발에 몸이 반쯤 가라앉는다. 섬광이 눈을 덮친다.
멀어버린 눈두덩을 감싸 진다. 틀어진 중심이 뒤로 쏠려 바닥에 머리를 처박는다. 베이지색 머리칼이 붉게 물들어간다. 머리말에 익숙한 돌이 보인다. 조금 전 내가 옮겨놓았던, 담배를 자주 태우는 아랫집 남자가 옥상 문이 닫히지 않도록 괴어 놓는 것이다.

지랄맞네.
퓨우, 한숨 쉬듯 연기를 내뿜던 것처럼 숨을 내신다. 담배를 살 돈 따위, 없다.
아까 그 빛은 뭐였지.
이제 와 무슨 상관이겠냐마는. 목을 가늠본다. 뼈에는 이상이 없는 것 같다. 천천히 고개를 일으켜 세운다. 여전히 밝다. 지금은 밤인데. 인위적인 불빛이 눈알을 태울 기세로 작열한다.

[Welcome To Tokyo!]
화려한 장신구와 레이스로 치장한 여자가 외친다. 알록달록한 조명이 곧 터질 듯한 풍선 같다. 여자의 이름은 루루다. 해사하게 웃는 루루의 얼굴이 전광판만큼 밝았다. 막바지였던 광고는 금세 끝났다. 길어봤자 이 초. 하지만 영원처럼 길고 길었던 순간.

1824온라인에세이 클럽 '아, 있다' 005

삼근삼리

00

03

눈꺼풀에 머문 잔상이 사라질 때쯤에야 벌어진 입술이 완전히 메말라 있다는 걸 깨달았다. 푸석푸석한 불이 간지러웠다. 무딘 시야에 손등을 댔다. 물이 묻었다. 그건 물이 아니라 눈물이었다. 입술에 눈물을 발랐다. 거친 표면이 조금이나마 매끄러워졌다. 미지근한 액체가 턱을 타고 흘러내렸다.
결심했다. 도쿄에 갈 거다. 가서 루루를 만날 거다.
그곳이라면 과거에도 현재에도 얽매이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끈적한 흉통을 떼어내고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

죽으려 하지 않았다. 가출하지 않았고 숨겨둔 커터칼과 목도리를 모두 버렸다. 장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붉은빛으로 물건을 스캔해 값을 매겼다. 돈을 벌었고 그건 우리 집의 유일한 생활비가 됐다. 아빠는 그 돈을 챙겨 새 도박판에 나신다. 난 한 번도 아빠를 이긴 적이 없다. 우리 가족은 넷이지만 아빠는 거의 들어오지 않아 남는 사람은 둘이다. 한 명은 술이 주식이고 다른 한 명은 초등학교 4학년인 내 목을 즐겼다. 근데 왜 다들 멀쩡히 살아있지?
억울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날이면 화장실 벽에 칼을 갈았다. 요리는커녕 제대로 된 식사를 한 지 오래였다. 몇 안 되는 주방 도구는 죄 녹슬어 제구실을 하지 못했다. 새로 사는 건 있을 수

1824온라인에세이 클럽 '아, 있다' 005

삼근삼리

00

04

없는 일이니 이렇게라도 하는 수밖에. 그런데 철의 색깔이 기억나지 않았다. 철, 철, 철……. 문득 철은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기 하얗게 타오르는 달처럼?
그래. 철은 달의 색이구나. 달의 색이 될 때까지 갈면 되겠다. 그런데 왜 타오르는 걸까. 고민하다 바빠 손을 움직여 본다. 여러 번 맞물린 손바닥이 붉게 물든다. 쓰라려. 그러다 달은 타오르는 게 아니라 한기를 내뿜는 것이라고, 살짝 내뿜는다.

경찰에 체포된 건 그때부터 예견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도쿄에 가기 위해서라는 답에 수사관은 도쿄? 라 되물었다. 느릿하게 눈을 깜빡였다. 당신의 귀가 옳다는 소리였고, 그는 한 번 더 고개를 가웃거리곤 그대로 적었다. 살인 사건이니만큼 교차검증이 철저했다. 엇비슷한 질문이 잇달아 반복적이고 지루한 심문이 이어졌다. 퓨우, 한숨이 새 나왔다. 돈은 생겼지만 구치소에선 담배를 피울 수 없었다. 꿈에 그리던 도쿄에 한 발짝 더 다가갔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후퇴한 것일지도 몰랐다.
누르스름한 전등 밑에서도 수사관은 피부가 하얗다. 창백한 쪽에 더 가까웠다. 우리 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스무 살이 되자마자 집을 나간, 한 살 터울의 오빠.
서랑.

1824온라인에세이 클럽 '아, 있다' 005

삼근삼리

00

05

서랑은 날이 밝자마자 짐을 싸다. 곰팡이가 쓴 오래된 옷이 주워온 듯한 캐리어를 가득 채워 채 담기지 못한 옷자락이 빠져나왔다. 아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훑듯 돈이 없는 것을 확인하곤 흥미를 잃었다. 엄마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왜? 왜? 먹이를 재촉하는 새끼 새처럼 끊임없이 물었다. 서랑은 녹물이 흘러나오는 세면대에서 간단히 세수하고, 캐리어를 돌려 댔다. 성한 바퀴가 없어 굴러 가기엔 역부족이었다. 영영 떠나기 전 서랑은 문가에 서서 말했다.

엄마도 도망치는 게 나을 거야. 재는 엄마도 아빠도 나도, 다 죽일 생각이거든.
엄마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아니, 떠나는 서랑을 붙잡는데 바빴다. 눈이 커지다 못해 터질 듯 달아오른 게 느껴졌다.
서랑이 떠난 후 엄마는 매일 술을 마셨다. 술을 마시다 잠들었고 잠에서 깨면 술을 마셨다. 아빠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도박이 끝나지 않았다는 신호였으며 쥐꼬리 같은 내 월급날이 멀었다는 것이었다.
이제 와보니 서랑이 있든 없든 똑같았다. 서랑의 잠적은 내 인생에 티끌만큼의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는 거다.
그러면 뭐가? 내 삶을 바꿔놓았지?
그게 뭐더라.

1824온라인에세이 클럽 '아, 있다' 005

삼근삼리

00

06

1824비밀소설클럽 “아, 있냐” 005

자꾸 이젠 어른이라고 하더라.
그게 뭔지도 모르겠는데, 준비도 안 됐는데.
여전히 아프기만 한 데 말야.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모르지만
그래도 이 불안함을 적어내릴 수는 있을 거야.

내 얼굴 모양의 가면을 쓰고
기억을 꺼내 거짓과 진실을 엮어 짓자.
소설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이야기.
쓰다 보면 내가 다시 보이지.
상처는 흉터가 되고
나는 남이 되는 그때 벌어진 조금 이상한 일

이젠 받아들일 수 있는 내 조각들
진실로 돌아온 다섯 개의 거짓말

* 『아, 있냐 005』 는 작가들의 삶과 경험을 담은 오디오션으로 쓰여졌습니다.

살금살금

클럽원 | 고틀무, 다운타운베이비, 또또, 루나, 연옥
함께한 사람 | 여름, H씨, 저니
책임편집 | 파종모종
펴낸곳 | 숲 광주광역시청소년상담디자인센터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160번길 31-37
전자우편 | hello@samdi.or.kr
대표전화 | 062-232-1324

그게

아,

그,

반짝이는 꿈.

아니 꿈이 아니라,

현실. 내 이상.

이상과 현실이 양립할 수 있던가.

모르겠다.

엄마.

서량이 날 죽이려 했어.

기억나? 그때 엄마는 자고 있었어. 아니, 자고 있는 척했지.

왜 그랬어?

왜 내가 죽을 수 있게 내버려 뒀어?

아니, 아니, 씨발 아니 대꾸하지 말고 닥치고 들어 왜그랬냐고

먼저물었잖아 묻는말에답이나해 기억이안나면안난다고해

모르겠으면모르겠다고해질문에만답을하라고그래기억이안나?

그럼엄마이전기억나내가엄마뻘속에있을때엄마가 날끄집어

내겠다고했어엄마가랑이사이에서들었어 금방뺏어질거같은

배에귀를대고들었어 엄마는나를아니들어나를갈아마실넌

이라고했어 그러곤막헉입구에뚫을집어넣으려했어 근데 왜

1824온라인에세이클럽 “아, 있냐” 005

살금살금

08

07

그만됐어?

이렇게 태어나 살 거였으면, 그때 갈려 먹히는 게 더 나았을
거야.

은우, 은우야!

서은우!

울부짖는 엄마의 가슴을 찢었다. 녹진한 피가 가죽처럼 부르튼
장판에 스며들었다. 덩어리 채 엉킨 피가 돌로 나뉜 엄마의 심장보다
더 심장 같아 보였다.

아빠는 돈이 없으면 알아서 죽을 거였다. 애초 도박에
교살당할 운명이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서량이였다. 서량은
죽이지 못했다. 그 전에 도망갔으니까.

씨발놈. 영악한 게 눈치만 더럽게 빨라서.

욕하지 말고. 수사관이 심드렁한 말투로 지적했다.

열리기 드문 문을 열고 옛된 형사가 서류 하나를 내밀었다. 네가
말하는 그 서량 말인데, 수사관이 서류 표지를 넘겼다. 질 낮은
종이인지 인쇄된 서량의 사진이 뒷면임에도 고스란히 비쳤다.

서량에 관한 서류다. 시선이 수사관의 입에 꽂혔다. 그놈, 날
죽이려 했던 그 개새끼가 어디서 어떻게 숨 쉬고 있는지, 말해.

실핏줄 터지는 소리가 났다. 수천 배는 느리게 시간이 흘러갔다.

말해!

1824온라인에세이클럽 “아, 있냐” 005

살금살금

09

08

죽었네. 한 달 전에.

목을 틀어쥔 손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서서히 시야가
밝아졌다. 하얗게 질린 전등이 형형색색으로 빛났다. 노랑, 빨강,
분홍, 주황. 따스하다.

도쿄. 비로소 도쿄에 다다랐다. 수사관은 눈앞에서 사라진 지
오래였다. 루루, 반짝이는 보석과 은빛 드레스를 걸친 루루가
다가와 손을 잡는다. 화려한 눈 화장에 정신을 뺏긴 채 그 손에
이끌린다. 내디딘 바닥이 허공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포근하다.

오,

야

야!

퍼뜩 정신이 들었다. 취조실. 도쿄는 흔적도 없이 모습을
감춰다.

어디다 한눈을 팔고 있어. 넌 운도 좋다, 참.
뭐? 되물을 새도 없이 수사관이 말을 이었다.

반쯤 기억나지 않는다. 엄마에 관한 얘기였던가. 재판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왜 죽지
않은 걸까. 차고 기우는 달을 보며 매일 생각한다. 루루는

1824온라인에세이클럽 “아, 있냐” 005

살금살금

09

09

찾아오지 않는다. 감옥이 너무 차서, 돌이 있기엔 비좁아서 그래.

증얼거리면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는 것 같다. 사실 전혀.

잠시나마 도쿄에 갔던 때의 꿈을 반복해서 꾸다.

수만 번 정도 반복하고 나면, 편히 잠들 수 있겠지.

1824온라인에세이클럽 “아, 있냐” 005

살금살금

10

10

헬로, 도쿄 텔레포트 드림

연옥

비틀린 일상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현실에서 일어날 법도, 일어나지 않을 법도 한 일.



1824온라인에세이클럽 “아, 있냐” 005

살금살금

2021년 겨울

1824온라인에세이클럽 '아, 있다' 005

참금참금

편

01

학교에서 술을 마시다 걸렸다. 학교에서 술을 마시는 것이 잘못이란 건 알고 있었다. 학교가 아니더라도 미성년자의 음주는 명백한 잘못이었다.

‘이러려고 이 학교 온 게 아니잖아.’

후회해봤자 내 위장에는 이미 알코올이 들어가 있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안학교 학생 이미지가 뭐였더라. 머리 염색하고 말 안 듣고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담배 빼고 다 해당하네. 나는 머리를 벽벽 긁었다. 속이 메스꺼웠다. 이게 술병인가.

변명하자면, 처음에는 술을 마시지 않으려고 했다. 기숙사 방에 혼자 있는 건 싫어서 과자나 얻어먹을 요량이었다.

해민이와 은수도 나를 내버려 둘 생각은 아니었다.

우리는 자정에 기숙사를 몰래 빠져나가 학교 구석에 있는 학생 휴게실에 숨어들었다. 삼학년 언니들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검은 비닐봉지에 소주병과 맥주캔이 가득 담겨있었다. 여러 개의 손이 능숙하게 과자봉지를 펼치고 소주병을 깬다. 알고 보니 해민이와 은수는 야간 학습 시간에 종종 마셨다고 했다. 나는 멍하니 그 경이로운 장면을 보며 새우깡을 씹고 있었다. 그러다 해민이가 딱 한 모금만 마시면 안 되냐며 나에게 맥주를 내밀었다. 원래대로라면 질색하며 거절할 생각이었지만... 어떤 맛일지 호기심이 생겼다.

1824온라인에세이클럽 '아, 있다' 005

참금참금

편

02

나 혼자 술을 마시지 않는 상황이 어색하기도 했다.

게다가 나는 일주일간 레포트를 쓰느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다. 나는 받아마셨고, 그 뒤로는... 술판이었다.

자꾸 웃음이 나왔다. 그렇게 기분이 좋은 건 오랜만이였다.

시아가 약간 어지러웠다. 은수가 나보고 취한 것 같다며 놀렸다.

벌칙주를 건 랜덤게임을 한창 하는데, 휴게실 문이 열렸다.

시선이 한꺼번에 문가로 쏠렸다. 검은 그림자가 서 있었다.

사감 선생님이였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선생님의 표정은 어두웠고, 딱딱하게 굳어있었다.

“다 나와.”

“그때 무서워서 뒤지는 줄 알았잖아.”

해민이가 말했다. 먹이 묻어 뺨이 새까맣다. 술을 마신 별로 청소하게 된 창고는 말도 안 되게 더러웠다. 바퀴벌레와 죽은 쥐가 가끔 나왔다. 우리는 업보이니 달게 받기로 했다.

“너희들 부모님은 뭐라 하셨어?”

은수가 물었다. 우리의 음주 사태에 관해서는 담임 선생님이 각자의 집에 전화를 돌렸다. 엄마는 선생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나를 바꾸어달라고 했다.

“그럴 줄 알았대.”

1824온라인에세이클럽 '아, 있다' 005

참금참금

편

03

내가 대답했다. 전화 너머 엄마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했다. 아이고 기집애, 과제 힘들다고 징징대던 게, 딱 소주 까고 싶은 말투던데. 기어이 마셨네. 잘하는 짓이다. 이제 선생님들 얼굴을 어떻게 보냐.

“화냈지. 정말 엄청 혼났지.”

해민이가 대답했다. 그리고 은수를 보며 물었다.

“너희 부모님은 뭐라 하셨는데?”

은수는 숙 웃고는 아무 말 없이 창고 바닥을 쓸었다. 은수가 다시 입을 연 것은 창고 청소를 끝낸 후였다.

“애들아.”

“왜.”

“내가 학교 나가면 어떨 것 같아?”

“자퇴하면?”

“응”

“.....”

“너 나가면 우리 학년 여학생 두 명이야.”

“아직 결정된 건 아니야.”

해민이가 은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물었다.

“왜 나가고 싶은데, 부모님이 나가래? 이번에 술 마신 것 때문에?”

“그것도 있고... 내년엔 고삼이기도 하고... 여기에 있는 게

1824온라인에세이클럽 '아, 있다' 005

참금참금

편

04

정말 맞는 건가 해서.”

은수는 우리를 쳐다보지 않고 창고 문을 닫았다.

“그냥, 모르겠어. 이번에 엄마랑 아빠랑 전화하니까

이게 뭐 하는 거지 싶더라. 인생에 도움이 되는 공부하라고

학교 보내놓았더니 몰래 술이나 마시고 있냐고.

그럴 거면 학교 나가고 대입 준비하라더라.

듣고 보니까 틀린 말이 아니어서... 학교 공부랑 나랑

잘 맞지도 않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은수의 고민이 낯설지 않았다.

전에 학교를 그만둔 친구들도 모두 이런 이유로 학교를 나갔다.

나는 해민이를 보았다. 해민이도 입을 삐꺼거리며 할 말을 찾고

있었다. 해민이도 은수도 모두 함께 학교를 졸업할 줄 알았는데.

기숙사로 돌아왔지만 씻을 힘도 없었다. 은수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모님과 통화를 하러 나가버렸다. 나와 해민이는 바닥에 드러누워 꿈쩍도 하지 않았다. 먼저 입을 연 것은 나였다.

“은수 정말로 나갈 것 같지?”

“몰라.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은수 수의사 하고 싶었잖아. 중학생 때 성적도

잘 나왔다니까, 한두 해 정도 공부 열심히 하면

1824온라인에세이클럽 '아, 있다' 005

참금참금

편

05

원하는 대학 갈 수 있을걸.”

“그런데... 수능은 학교 졸업하고도 준비할 수 있잖아.

나는 뭐가 그렇게 급한지 모르겠어.”

“뒤쳐지는 게 무서운 걸지도 모르지. 아니면-”

나는 잠시 생각해보았다.

“그거 빼고도 학교 그만두고 싶은 이유는 많잖아.”

이것을 시작으로 해민이와 나는 주거니 받거니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다.

“생각해 봐, 학력 인정도 안 되고, 가장 가까운 편의점은

걸어서 세 시간이야. 논밭 옆에 기숙사 지어놓아서

여름에는 개구리들이 존나 울고 창고에는 쥐가 죽어있어.”

“그러네, 토론하고 논문 쓰는 게 마음에 들어서 왔는데

술 먹고 걸리거나 하고.”

“책도 읽었고 글도 썼고 수업도 듣고 행사 준비도 했고.

한 건 많은데 나한테 남은 건 별로 없는 기분이고.”

“그리고 이 학교 사람들, 청소 시간만 되면 발라드 틀잖아.

발라드 너무 우울한데, 싫다고 하면 면박 줄까 봐

싫은 티도 못 내.”

“여기에서만 사니까 나한테 딱 여기밖에 없는 느낌이야.

사람 사귀는 법도 잊어버린 것 같고. 대안학교 인식도

안 좋잖아. 나 대안학교 다닌다는 말 했다가



1824비밀소설클럽 “아, 있냐” 005

자꾸 이젠 어른이라고 하더라.
그게 뭔지도 모르겠는데, 준비도 안 됐는데.
여전히 아프기만 한 데 말야.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모르지만
그래도 이 불안함을 적어내릴 수는 있을 거야.

내 얼굴 모양의 가면을 쓰고
기억을 꺼내 거짓과 진실을 엮어 짓자.
소설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이야기.
쓰다 보면 내가 다시 보이지.
상처는 흉터가 되고
나는 남이 되는 그때 벌어진 조금 이상한 일

이젠 받아들이 수 있는 내 조각들
진실로 돌아온 다섯 개의 거짓말

* 『아, 있냐 005』 는 작가들의 삶과 경험을 담은 오디오북으로 쓰여졌습니다.

살금살금

클럽원 | 꿀무, 다운타운베이비, 또또, 루나, 연옥
함께한 사람 | 여름, H씨, 저니
책임편집 | 파종모종
펴낸곳 | 숲 광주광역시청소년삶디자인센터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160번길 31-37
전자우편 | hello@samdi.or.kr
대표전화 | 062-232-1324

종교 학교나는 말 들었다.”

말하다 보니 웃음이 나왔다. 상황이 웃겼다. 우리가

그런 학교에 제 발로 들어왔다는 사실과 기숙사에 누워서

학교의 구린 특징들을 나열하고 있는 상황이. 어이가 없어서

맥없이 웃었다.

“너도 학교 나가고 싶어?”

해민이가 물었다.

“모르겠어.”

“어떻게 다 모르는 애들밖에 없냐.”

“너는?”

“죽어도 졸업할 거야.”

“왜, 오기 생겨서?”

“응, 이번 추석 때, 고모가 아빠한테 그러더라. 재 언제까지

대안학교에 둘 거냐고. 나쁜 물 들어서 공부도 안하고

대학도 못 가면 어떻게 거냐고 말하는 거 다 들렸어.

그거 들으니까 졸업해야겠더라. 어떻게든 학교 졸업하고

잘 살아야겠더라고.”

“너무했다. 우리도 나를 열심히 하는데...”

“내가 술도 마시고 암전하지도 않은 건 사실인데,

일반 학교에도 그런 애들은 차고 넘치잖아.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건지 모르겠어. 일 년 하고 조금만 지나면 성인인데.”

1824온라인에세이클럽 “아, 있냐” 005

살금살금

루나

07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러게, 뭘 하지. 모든 게

막막했다. 어쩐지 하고 싶은 공부는 스스로 선택하겠다며

학교에 입학했을 때보다 더 뿌연고 불확실한 기분이었다.

나는 시계를 보았다. 어느새 자정이 넘어있었다. 은수는 아직

통화 중인지, 돌아오지 않았다. 해민이가 푹 잠긴 목소리로

졸린다며 응얼했다.

“씻고 자야지.”

“찬바람 맞으면 잠 깰까.”

“창문 열어.”

“귀찮아, 열어줘.”

나는 해민이를 흘려보며 비척비척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들어오는 공기가 유난히 찼다. 곧 눈이라도 올 것 같았다.

야간학습이 끝나고 학교를 나오던 참이었다. 하늘에서

함박눈이 쏟아져 이미 발목까지 쌓여있었다. 일학년 몇 명이

한쪽에서 거대한 눈사람을 만들고 있었다. 넓디넓은 운동장은

거의 비어있었다.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다. 우리는 눈을 가지고

별짓을 다 했다. 눈을 잔뜩 모아 뿌리고 작은 눈사람을 도합

서른 개쯤 만들고 그걸로 눈싸움을 했다. 난리 통 후에

해민이는 지쳤다며 운동장에 그냥 누웠다. 두껍게 쌓인 눈에

1824온라인에세이클럽 “아, 있냐” 005

살금살금

루나

08

작은 해민이가 누우니 푹 들어갔다. 은수도 눈이 밝히지 않은

곳을 골라 널브러졌다. 나는 그 옆에 따라 누웠다. 눈은 폭신했고,

포근한 느낌마저 들었다. 엄지손톱만 한 눈송이가 자꾸 얼굴에

걸옷에 떨어졌다. 이대로라면 정말 눈더미에 파묻히지 않을까.

“눈이 일주일만 더 빨리 왔으면 좋았을 텐데.”

해민이가 말했다.

“그럼 술 마실 기분도 안 들었을 거고, 혼나지도 않고

창고 청소도 안 하는 건데.”

은수가 작게 웃으며 하얀 입김을 내뿜었다. 공기에 뿌연

흔적이 사라지자, 은수는 입을 열었다.

“나 학교 나갈 것 같아.”

“결정 난 거야?”

“엄마 아빠랑 이야기도 하고 생각도 많이 해봤는데,

수능 공부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

“.....”

일어나고 싶지 않았다. 새까만 하늘에서 하얀 눈발이

쏟아져 팔랑거렸다. 내년에는 은수가 없다. 그럼 오늘 같은 날은

다시 오지 않겠지. 은수의 빈자리는 모두의 빈자리가 그랬던

것처럼 차곡차곡 메워질 테고 남은 사람들은 달라진 모습 없이

주어진 한 해를 살아갈 것이다. 그 후에는... 각자가 안고 있던

불안과 확신 속으로 들어가게 되겠지.

1824온라인에세이클럽 “아, 있냐” 005

살금살금

루나

09

“뭔가 슬프다.”

“나 없어지니까?”

은수가 양팔로 해민이와 나를 토닥였다.

“애들아, 나 보고 싶다고 울지 마.”

“안 그래.”

1824온라인에세이클럽 “아, 있냐” 005

살금살금

루나

10

2021년 겨울

루나

대안학교에 다닙니다. 술은 아직 마시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으니 순간을 소중히 여겨야겠죠.



1824온라인에세이클럽 “아, 있냐” 005

살금살금

루나

秘密 비밀



1824온라인에세이클럽 “야, 있냐” 005

살금살금

다윈타운베이비

01

엄마를 이번에 진짜 꼭 만나고 싶어.

엄마를 만나기 위해 3시간 걸리는 버스에 올라탔다.

학창 시절에 인적 사항 중 가족관계란의 빈칸을 보면 매번
엄마가 떠올랐고 보고 싶었다.

어렸을 때 나를 시설에 맡기고 사라진 엄마.

엄마를 보고 싶은 마음과 하고 싶은 말들을 편지에 썼다.

“엄마는 나처럼 키가 클까? 무슨 일을 하실까?”

라며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기도 했다. 몇 년 동안 그리워만 하고
있는 엄마를 이제는 정말 만나고 싶었다. 만나면 무슨 말과 행동을
해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그려봤다.

“안녕하세요? 저는 편지 전해드리려고 왔어요?”

아! 아니다, 저는 엄마 딸입니다...?”

들어갈 땐 짹째 들어가고 나올 땐 후다닥! 하고 나와야 하나?

아, 그냥 내가 딸이라고 밝혀야 하나?

설렘 반과 기대 반을 갖고 목적지에 도착했다.

‘아! 초인종 못 누르겠다. 우편함에 편지만 넣고 그냥 가자!’

혼잣말을 하며 10분 동안 망설이며 집 앞을 서성거렸다.

초인종조차도 누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괜히 왔는지 후회가 됐고

1824온라인에세이클럽 “야, 있냐” 005

살금살금

다윈타운베이비

02

너무 떨리고 정말 혼비백산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지금 안 누르면 엄마 평생 못 본다는 마음으로 눈 딱 감고 초인종을
눌렀다.

“누구세요? 누구세요?!!!”

엄마의 화난 목소리에 나는 당황했고 울고 싶었다.

“저,, 퍼...편지 전해드리려고 왔어요!”

얼떨결에 말하고 밖에 나가서 화단 옆에 숨어서 전화 오기만을
기다렸다.

‘내 편지를 읽지 않으면 어떡하지? 나한테 다시 전화를 안 하면
어떡하지?’ 등의 불안한 생각 때문에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나는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몇 분이 지나고 전화가 왔다.

엄마를 대신한 사회복지사분이 전화로 들어오라고 말했다

“아직 멀리 안 갔으면 집에서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네요!”

“혹시 누구세요? 엄마 목소리가 아닌 거 같아서요,”

“소개가 늦었네요, 저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엄마가 사회적 적응 능력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네... 저희 엄마가 많이 안 좋으신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도움이 필요해서 제가

1824온라인에세이클럽 “야, 있냐” 005

살금살금

다윈타운베이비

03

보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엄마에 대해 하나하나 자세하게 말해주셨다.

“너의 엄마는...”

부터 이야기를 쭉 하시는데 ‘엄마’라는 말 한마디에 눈물바다가
됐다. 나는 뒤적뒤적 휴지를 찾아서 그것을 문쳐서 눈물, 콧물을
닦고, 문쳐서 그것을 계속 만지작거리며 훌쩍훌쩍 거렸다. 사실
엄마에 대해 좋은 쪽으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지난 시간 동안
힘들게 살아왔을 엄마를 생각하니 실망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여 눈물이 다시 났다. 이렇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많이 울어봤다. 이야기가 끝나고 나는 엄마와 따로 시간을 가졌다.
서로 인사만 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색하고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다. 어색한 분위기만 흐르기에 나는 근처에 예약한 모텔에
돌아가려고 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분이 나를 막아섰다.

“이왕 이렇게 오신 거 저녁이라도 먹고 가요!”

“네??? 지금요?? 저 가 봐야 할 거 같아요!”

“그래도 저녁이라도 같이 먹었으면 해요, 준비하고 얼른 오세요!”

차로 향했을 때 나는 놀랐다. 차에 갑자기 어린아이 두 명이 앉아
있었다.

1824온라인에세이클럽 “야, 있냐” 005

살금살금

다윈타운베이비

04

1824비밀소셜클럽 “야, 있냐” 005

자꾸 이전 어른이라고 하더라.
그게 뭔지도 모르겠는데, 준비도 안 됐는데.
여전히 아프기만 한 데 말야.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모르지만
그래도 이 불안함을 적어내릴 수는 있을 거야.

내 얼굴 모양의 가면을 쓰고
기억을 꺼내 거짓과 진실을 엮어 짓자.
소설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이야기.
쓰다 보면 내가 다시 보이지.
상처는 흉터가 되고
나는 남이 되는 그때 벌어진 조금 이상한 일

이젠 받아들일 수 있는 내 조각들
진실로 돌아온 다섯 개의 거짓말

* 『야, 있냐 005』 는 작가들의 삶과 경험을 담은 오토픽션으로 쓰여졌습니다.

살금살금

클럽원 | 골무, 다운타운베이비, 드또, 루나, 연옥
함께한 사람 | 여름, H씨, 저니
책임편집 | 파종모종
펴낸곳 | 슝 광주광역시청소년상담디자인센터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160번길 31-37
전자우편 | hello@samdi.or.kr
대표전화 | 062-232-1324

“이 애들 누구예요???, 누구세요?, 혹시 선생님 자녀예요?”

“아... 이 애들은 너의 동생들이다.”

“네??? 이게 무슨... 저 외동딸이에요!”

동생이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너무 놀란 나머지 차를 타지 않고 서있기만 했다.

외식장으로 이동한 후 나도 몰랐던 가족이랑 밥을 먹어야 한다니 정말 밥이 넘어가지 않았고 이 자리를 뜨고 싶었다.

분위기는 정말 어색했다. 나는 아까 들었던 엄마 생각 때문에 밥 한 번에 눈물 한 번 흘리며 밥을 꾸역꾸역 먹었다. 반면 엄마는 아무 생각 없는 듯한 표정을 한 채 밥을 먹었고 동생들은 밥을 맛있게 먹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각자의 길로 갔다. 나는 모텔에서 혼자만의 생각을 가지며 밤을 지새웠다.

얼마나 울었으면 눈이 퉁퉁 부어 눈 뜨기가 힘들 정도였다.

사회복지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집에 가려고 했다. 엄마가 아침 식사로 미역국과 고기를 대접해서 아침 식사를 하게 됐다.

“내가 너의 엄마로서 미역국이라도 끓여주고 싶었다. 늦었지만 많이 먹고 맛있게 먹어라~!”

1824온라인에세이 클럽 ‘아, 있냐?’ 005

참금참금

다운타운베이비

05

나는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어제 같이 밥을 먹었는데도 적이 전혀 되지 않고 어색하기만 하였다. 엄마가 직접 끓여준 미역국과 고기를 먹었다. 이 순간만큼은 나도 엄마랑 소소한 밥 한 끼 먹을 수 있어서 잠시나마 행복했다. 엄마가 해준 미역국은 맛있었다. 배부르게 식사가 끝나고 가족이들이랑 근처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산책을 했다. 내 인생에 처음으로 가족사진을 찍었다. 나 혼자 키가 크니 쭉그리고 앉아서 찍고, 엄마는 어색했는지 정말 정자세로 무표정으로 사진 찍고, 동생들은 손으로 브이를 하며 웃는 얼굴로 사진을 찍었다. 동생들만 신난 가족사진을 보니 웃기기도 하고 정말 불어빵 가족이었다. 소소한 추억 만들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아쉬운 마음이 남아 있었다.

엄마는 나를 배웅했다.
“내가 지금껏 해준 게 없지만 이거라도... 돈이 얼마 안 되지만 받으렴!”
“네?? 아니에요. 이러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래도 받으렴, 내가 해주고 싶은 게 이거뿐이네. 용돈이라 생각하고 필요한 거 사요!”
작별 인사로 서로 안아주고 버스에 올라탔다. 돌아가는 버스에서 눈물을 또 흘리기 싫어서 눈을 감고 잠을 잤다.

1824온라인에세이 클럽 ‘아, 있냐?’ 005

참금참금

다운타운베이비

06

3시간 후 집에 도착했다. 30분이 지나고 엄마에게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네가 집에 잘 도착했는지 궁금해서 전화했어,”
“저 방금 집에 도착했어요!”
그땐 몰랐지만 우리는 서로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남아있었다.
“우리 큰딸이 와줘서 너무 고맙고 미안해. 어제는 첫 만남이라 어색했는데 지금부터라도 엄마 노릇을 하고 싶어.”
“네? 아니에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엄마를 엄마라고 말해주면 좋겠는데”
“...”
엄마라고 부르는 것이 어색했다. 엄마는 내가 하루빨리 엄마와 함께하길 바라고 있었다.

“엄마라고 말하는 게 왜 싫어?”
“싫어요! 이제 고작 한 번 만났는데 아직은 빠른 거 같아요. 그리고 갑자기 이러시는 거 부담스러워요.”

며칠이 지나고 엄마는 나에게 또 전화를 걸었다.
“잘 지내는지 궁금해서 전화했어”
“네! 저도 잘 지내요, 무슨 할 말이라도 있으세요?”
내가 단호하게 말해서 엄마가 전화할 거라고는 생각지도

1824온라인에세이 클럽 ‘아, 있냐?’ 005

참금참금

다운타운베이비

07

못했다. 그런 내게 안부 인사를 먼저 해줘서 고마웠다.
“엄마가 부탁이 있는데, 네가 동생들 숙제 좀 봐주면 안 될까?”
엄마의 첫 부탁이라 거절하지 않았다.
한 번은 도와줬지만, 계속 의지하려는 거 아닌가?
이제라도 엄마 노릇을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힘들었던 삶을 나에게 조금이라도 기대어보려고 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엄마 가족도 내가 부양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
나는 엄마 가족에 대한 애정이 없기 때문에 연을 끊기로 결심했다.

“영상통화로 동생들 숙제...”
허탈한 마음으로 엄마의 말을 끊고 말했다.
“저 드릴 말씀 있어요, 저는 혼자서도 잘 살아왔고 좋은 친구들이랑 잘 지내고 나를 케어해주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잘 살게요.
엄마도 엄마 인생 잘 살아요”
“네 뜻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그래. 알았다. 끊어.”
차갑게 변한 엄마는 기분이 상한 거 같았다.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정적이 흘렀다. 우리 둘 중 전화를 끊기만을 기다렸다.
그렇게 예전으로 돌아갔다. 엄마의 존재를 몰랐던 때로.

1824온라인에세이 클럽 ‘아, 있냐?’ 005

참금참금

다운타운베이비

08

秘密 비밀

다운타운베이비

최 진사택 셋째 딸



1824온라인에세이 클럽 ‘아, 있냐?’ 005

참금참금

리턴 투백



1824온라인에세이클럽 “야, 있냐” 005

살금살금

18

01

채서린은 날 때부터 애매한 아이였다. 12월 28일, 신년이라기에도 연말이라 하기도 애매한 때에 태어나 엄청난 천재도, 평범한 일반인도 아닌 애매한 재능을 구사했다. 평론가였던 엄마는 네 살배기 서린의 그 애매한 재능을 단번에 알아봤다. 원래 예술적 감각은 핏줄을 넘나들기 마련이다. 그래서 서린은 자연스럽게 어릴 적부터 미술을 시작했다. 아주 어렸을 땐 엄마가 좋아해서 했고 조금 더 자라서는 나름 애정을 쏟아붓기도 했었다. 그러나 나이가 더 이상 실력을 대변해 줄 수 없을 즈음부터 그 애매한 재능은 압박으로 다가왔다. 엄마는 틀렸다. 일찍 시작하면 노력과 경험으로 부족한 재능을 적당히 메꿀 수 있을 줄 알았겠지. 노력은 천재들도 한다. 그게 서린이 매일 노력해도 그들의 발끝만치도 따라갈 수 없는 이유였다. 그래도 엄마는 주저앉은 서린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 서린은 곳곳이 애매한 그림을 그려냈고 남들에게 나쁘지 않은 평가를 받기도 했다. 때로는 4절지를 북북 찢어발겼으며 날카로운 엄마의 눈빛을 뒤통수에 고스란히 받아내며 그림을 완성해나갔다. 그리고 16살의 막바지, 중학생도 고등학생도 아닌 그 겨울에 서린은 지원했던 예고의 불합격 통지를 받고 미술을 그만두었다. 평상시처럼 그림을 그리고 있던 서린은 소식을 듣자마자 표정 변화 하나 없이 자리를 정리했다. 울거나 화내지는 않았다.

1824온라인에세이클럽 “야, 있냐” 005

살금살금

18

02

미술이란 분야에 더 감정을 쏟아내봤자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안다. 이젠 (사실 원래도) 그림이 싫었고 자신의 애매함에 진절머리가 났다. 충분히 경쟁률 낮은 다른 예고에 지원할 수 있었지만 그냥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에 입학했다. 앞으로 그림을 그릴 일은 없을 것이다. 이제 서린은 매일 붓과 걸레를 빨지 않아도 되었고 팔레트에 물감을 짤 필요도 없다. 드디어 해방이었다. 습관은 때때로 사람을 괴롭게 만든다. 16년간 길들여진 손은 무의식 중에 새로운 선들을 그어내고 싶어 했다. 싫어하지만 동시에 할 줄 아는 게 미술밖에 없다는 반증이다. 2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버릇은 쉽게 고쳐지지 않은 채 서린의 흉터로 남았다. 아파트 공동 현관 계단에 꾸그러 앉은 서린은 조그마한 노트 위로 건물들 사이의 풍경을 그려내고 있었다. 도롯가 차들의 경적소리가 희미하게 귓가를 맴돌았다. 한여름의 오후 6시가 미적지근하게 흘러갈 것만 같았다. 누군가 불쑥 튀어나와 방해하지만 않았다면. “오오, 하늘?”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어보니 중딩쯤 되어 보이는 키 작은 여아가 스케치북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무슨 그림 그려? 되게 잘 그리네.”

1824온라인에세이클럽 “야, 있냐” 005

살금살금

18

03

언제 봤다고 여자에는 초면에 딱딱딱 반말을 썼다. 서린은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통명스럽게 대답했다. 여자에는 쳐다보지도 않고 스케치북에 시선을 고정한 채였다. “강 낙서한 거거든. 신경 쓰지 말고 갈 길 가라.” “나도 그려주라.” “뭐?” “나, 그려달라고.” 대답은 가볍게 씹은 여자애의 입에서 나온 얼토당토않은 말에 서린이 헛웃음을 쳤다. 꼬맹이가 진짜 못 하는 소리가 없네. 미술을 한다고 하면 주변 지인들에게 꼭 듣던 말이었다. 본인 좀 그려달란 말은 미술학도들의 숙명이라도 된 마냥 따라다녔다. “나 이제 그림 같은 거 안 그려. 빨리 집 가서 공부나 해.” 서린은 여전히 허공을 바라보며 대충 엉덩이를 툭툭 털어내고 스케치북과 화구통을 챙겼다. “왜? 그럼 이젠 뭐데?” “아, 그냥 낙서한 거라고. 나 집 갈 거니까 비켜.” 그 말에 여자에는 오히려 히죽 웃으며 아파트 현관문을 몸으로 막아섰다. 알미운 목소리가 다시 한번 공기를 갈랐다. “여기 살아? 몇 층?” “알 바야? 너, 그리고 나이도 어린 게 아까부터 왜 자꾸 반말이야.”

1824온라인에세이클럽 “야, 있냐” 005

살금살금

18

04

1824비밀소셜클럽 “야, 있냐” 005

자꾸 이젠 어른이라고 하더라. 그게 뭔지도 모르겠는데, 준비도 안 됐는데. 여전히 아프기만 한 데 말야.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모르지만 그래도 이 불안함을 적어내릴 수는 있을 거야.

내 얼굴 모양의 가면을 쓰고 기억을 꺼내 거짓과 진실을 엮어 짓자. 소설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이야기. 쓰다 보면 내가 다시 보이지. 상처는 흉터가 되고 나는 남이 되는 그때 벌어진 조금 이상한 일

이젠 받아들일 수 있는 내 조각들 진실로 돌아온 다섯 개의 거짓말

* 『야, 있냐 005』는 작가들의 삶과 경험을 담은 오토픽션으로 쓰여졌습니다.

살금살금

클럽원 | 골무, 다운타운베이버, 드또, 루나, 연옥
함께한 사람 | 여름, H씨, 저니
책임편집 | 파종모종
퍼낸곳 | 숲 광주광역시청소년심디자인센터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160번길 31-37
전자우편 | hello@samdi.or.kr
대표전화 | 062-232-1324

참다못한 서린이 목소리를 높였다. 픽 입꼬리를 울리며 교복 가슴팍의 학교 마크를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다.

순식간에 이성이 휘발됐다.

“하, 너 진짜 뭐 하는 애냐? 너 학교 어디야. 혜성중? 대진중?”

여자애는 이제 숨기는 기색도 없이 대놓고 웃기 시작했다.

서린이 다시 한번 화를 내려고 입을 열자 여자애가 다급히

대답했다. 그리고 이어진 말은 서린의 벌어진 입을 한 번에

다물게 하기에 충분했다.

“나, 자퇴했는데.”

서린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현관에 대충 신발을 벗어던지곤 침대로 털썩 엎어졌다. 미처 내려놓지 못한 화구통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자잘한 소음을 만들어냈다. 어이가 없었다.

초면에 다짜고짜 그림을 그려달라니. 불순한 의도가 아닌 걸

알고 있다. 그림에도 기분이 나쁜 건 사실이었다.

그날 이후로 서린에게 미술이란 트라우마나 다름없는 존재로

자리 잡았으니까. 여자애, 아니 7층 산다는 한국대 자퇴생

그 언니는 병찢 서린을 두고선 다음에 만나면 자기를 그려달라며

마지막까지 장난을 쳤다. 솔직히 그냥 넘겨도 될 일이었는데

왜 자꾸 그려달라는 말이 생각이 나는지 서린도 몰랐다.

괜히 사람 마음 불편하게 한다면 성을 뱐다.

1824온라인에세이클럽 ‘아, 있냐?’ 005

참금참금

|||

05

한참을 핸드폰을 뒤적이다가 별떡 일어나 머리를 헤집었다가

다시 눕기를 반복, 결국 서린이 짧은 비명을 지르며 침대에서

일어났다. 되면 좋은 거고 망하면 어쩔 수 없는 것. 서랍을 몇 번

뒤적이다가 자리에 꿈쩍없이 앉아 흰 도화지에 선을 채워나가기

시작했다. 고작 삼십 분 전인데도 얼굴이 가물가물했다.

차분히 눈을 감고 머릿속으로 희미한 얼굴을 떠올렸다.

허리께까지 오는 흑색 곱슬머리와 어린애처럼 깡마른 몸,

장난기 있게 웃던 입매와 서린의 낙서를 쳐다보던 푹망푹망한

눈, 한여름 무더위 탓에 발강게 달아오른 홍조기 있는 볼이

노트 위로 선명해지기 시작했다. 잠시 후, 서린이 연필을

내던지듯 책상 위로 내려놓았다.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려

한숨을 내쉬었다. 거즘 2년 만이었다. 무의식적이 아닌

의식적으로 그리고자 하여 그린 그림은 자꾸만 서린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했다. 꼭 잘 그리지 않아도, 완성하지 않아도

괜찮을 그림, 그림에도 잘 나온 그림이 계속 시선을 끌었다.

짧게 고민하던 서린이 다시 연필을 집어 들어 이름 석 자를 꺾꺾

놀려줬다. 좀 전에 들었던 이름이 자꾸만 생각난 탓이다.

“아……. 쓸데없이 객기 부렸나.”

마침내 그림 한 장이 완성되었다.

“자퇴? 왜, 어디 다녔는데?”

1824온라인에세이클럽 ‘아, 있냐?’ 005

참금참금

|||

06

“한국대. 근데 별로 잘 안 맞아서 그냥.”

“한국대? 내가 아는 그 한대? 거길 자퇴했다고? 아니, 그럼

중당이 아니라…….”

“한국대 그거 생각보다 별거 아니다? 원래 가고 싶던 과도

아니었고…….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진 모르지만 한번 용기 내서

해봤어.”

그걸 보통은 용기가 아니라 객기라고 부르지 않나. 서린은

하마터면 목구멍 밖으로 튀어 나갈 뻔한 말을 겨우 삼켰다. 물론

표정으로 여실히 드러났다는 사실은 서린이 모를 일이었다.

“그림 하던 애지? 왜 그만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어떻게…….”

“보면 금방 알지.”

여자애, 아니 한국대 자퇴생 언니가 서린의 손, 화구통,

그리고 서린의 눈을 차례대로 훑듯 바라보았다. 서린이 입시용

색연필을 쥐 손을 저도 모르게 뒤로 숨겼다. 잠깐 사이에 모든 걸

간파당한 기분이었다.

“그래도 아직까지 끼적이고 있는 걸 보면 미련이 남은 것

같은데 잘 생각해봐. 너무 늦기 전에.”

“무슨…….”

대뜸 의중을 알 수 없는 말을 던진 언니는 아파트 현관문

비밀번호를 두드리더니 다시 한번 서린의 말허리를 잘랐다.

1824온라인에세이클럽 ‘아, 있냐?’ 005

참금참금

|||

07

“나 중딩 아니고 서예של. 7층 사니까 다음에 만나면 나 그려줘.

나 간다.”

순식간에 한국대 자퇴생 언니가 서린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뒤 한번 돌아보지 않고. 서린은 공동 현관문이 닫히고도

한참 걸음을 떼지 못했다. 일주일쯤 전, 701호가 이사를 와서

엘리베이터에 가구가 팍 들어찬 탓에 하는 수 없이 5층까지

걸어 올라갔던 기억을 되새김질했다.

‘나, 그려달라고.’

괜히 자기를 그려달라는 말이 마음에 자꾸 걸렸다. 서린이

애먼 벽을 발로 걷어찼다. 부딪친 엄지발가락이 얼얼했다.

“에이씨, 재수 없어!”

텅 빈 공동현관 복도에 앙칼진 목소리가 부딪쳐 웅웅거린다.

이내 곧, 아무도 없었다는 듯 소리가 사그라들었다.

1824온라인에세이클럽 ‘아, 있냐?’ 005

참금참금

|||

08

리턴 투백

뜨뜨

청춘의 막바지에서 난데없는 뒤로 걷기를 시도 중이다.

영원히 지금이 끝나지 않기를 바라니까.

세상에 영원한 건 없다는 사실 역시 배워가는 중이다.

유일하게 영원한 건 세상에 영원한 게 없다는 사실 뿐.



1824온라인에세이클럽 ‘아, 있냐?’ 005

참금참금

|||

관심은 없겠지만

1824온라인에세이클럽 “야, 있냐” 005

살금살금

땀

01

냉장고를 열었는데 텅, 부엌 찬장을 열었는데 텅. 유사 히키코모리 생활을 시작한 지 네 달째. 술과 과자가 다 떨어졌다.

네 달 만에 마주한 햇빛에 눈을 잘 뜰 수가 없었다. 5분도 채 견지 않아 가슴과 등이 땀으로 가득 찼다.

편의점 안은 더위를 피해 몰려든 사람들로 가득했다. 정말 나오기 싫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재미도 없는 게임을 하루 종일 해야만 하는 게임중독 폐인의 삶이니까. 술과 과자까지 없다면 너무 지루해 숨이 콕 막혀 죽을 테니까.

계산대 앞에 서서 바코드 찍는 손을 바라보고 있는데 점원이 나를 흘금흘금 쳐다보는 게 느껴졌다. 그 시선 끝엔 웃이 얇은 탓에 속이 비쳐 보인 내 젓꼭지가 있었다. 땀에 젖은 웃은 젓꼭지를 더 선명히 드러냈다. 속이 메스거렸다.

손님. 카드 앞쪽에 꽂아주시겠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숨이 찬다.
손님?
괜찮으세요?
날 부르는 점원의 눈은 여전히 내 두 젓꼭지에 닿아있었다.

카드를 뉘 손이 덜덜 떨렸다. 갑자기 들리던 모든 소리가 선명해졌다. 편의점이 빙빙 돌기 시작했다.

아니, 내가 도는 건가?
사람들이 내 주위로 몰려들었다. 모두가 내 몸을, 젓꼭지를

1824온라인에세이클럽 “야, 있냐” 005

살금살금

땀

02

쳐다보았다. 숨이 잘 쉬어지질 않는다. 발을 헛디더 넘어졌다. 그들의 시선이 내 폐와 목을 쥐어짜다. 정신이 아득해져 갔다.

육교 난간 아래로 텅 빈 도로를 바라봤다. 떨어지면 아프겠지. 이 정도 높이라면 어디 하나 부러지고나 말 거다. 그럴 거면 왜 떨어져.

오늘 낮 퇴사를 했다. 일을 그만둘 때마다 들던 소리를 이번에도 들었다. 힘들어하고 있는지 물랐다고, 진작 말하지 그랬냐고. 늘 웃는 얼굴에 동료들과도 잘 어울리길래 적응 잘하는 줄 알았다고.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그만둔다고 하면 당황스럽다고.

어이가 없다. 힘들어하고 있는지 물랐다고. 그럼 고용주 앞인데 얼굴 찌푸리고 한숨 푹푹 쉬면서 일하리? 밝은 척한 거지. 동료들이랑 잘 어울리는 줄 알았다고. 그럼 한 공간에서 매번 손발 맞춰 일해야 하는 데 올상 짓고 썩까리? 힘든데 노력한 거지. 갑자기 그만둔다고 하면 당연히 당황스럽지. 그건 내 잘못이 맞다. 인정한다. 근데 나도 버틸 만큼 버텨보고서 말한 거라고 진짜. 근데 그게 세 달인 게 문제인 거겠지.

담배가 피고 싶어졌다. 남은 담배가 있던가. 가방을 뒤적이니 잡동사니 사이로 겨우 숨을 부지하고 있던 담배 한 개비가

1824온라인에세이클럽 “야, 있냐” 005

살금살금

땀

03

나타났다. 고개를 쳐들고 달을 향해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 후우우우, 더러워져라.

의사는 내가 편의점에서 기절했다고 했다. 응급실로 실려 와 10시간 넘게 잠들어 있었다고. 그런데 조금 이상하다. 분명 편의점에서의 일이 전부 기억나는데 아무렇지 가 않다. 몸만 조금 어지러울 뿐,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다. 잠시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다. 마침 육교가 보였다.

육교를 올라가니 웬 사람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난간에 등을 딱딱 기댄 채 연기를 내뿜었다. 참 맛있게도 피네. 피고 싶어지게. 근데 라이터가 없다.

저기, 초면에 죄송한데 혹시 불 좀 빌릴 수 있을까요.
그는 나를 잠시 쳐다보더니 라이터를 꺼내 들며 말했다.
그럼 이거랑 그쪽 담배 두 개비랑 바꿀래요? 난 김디자이너예요. 그쪽은요?
박우진입니다.
담배를 입에 물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빈속이라 그런지 속이 쓰렸다. 그가 물었다.
여기서 떨어진다고 죽진 않겠죠?
도로를 내려다봤다. 깜빡이는 신호등의 노란빛과 텅 빈 도로의

1824온라인에세이클럽 “야, 있냐” 005

살금살금

땀

04

1824비밀소셜클럽 “야, 있냐” 005

자꾸 이젠 어른이라고 하더라. 그게 뭔지도 모르겠는데, 준비도 안 됐는데. 여전히 아프기만 한 데 말야.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모르지만 그래도 이 불안함을 적어내릴 수는 있을 거야.

내 얼굴 모양의 가면을 쓰고 기억을 꺼내 거짓과 진실을 엮어 짓자. 소셜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이야기. 쓰다 보면 내가 다시 보이지. 상처는 흉터가 되고 나는 남이 되는 그때 벌어진 조금 이상한 일

이젠 받아들일 수 있는 내 조각들
진실로 돌아온 다섯 개의 거짓말

* 『야, 있냐 005』 는 작가들의 삶과 경험을 담은 오토픽션으로 쓰여졌습니다.

살금살금

클럽원	골무, 다운타운베이비, 또또, 루나, 연옥
함께한 사람	여름, H씨, 저니
책임편집	파종모종
펴낸곳	숲 광주광역시청소년살디자인센터
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160번길 31-37
전자우편	hello@samdi.or.kr
대표전화	062-232-1324



고요함이 대조됐다.

어디 하나는 부러지겠네요.

그는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보였다. 불안간 그가 말했다.

자퇴. 자퇴했어요. 고1 때. 죽기 싫어서. 계속 다녔다간 죽겠더라고요.

자퇴하려면 부모님 허락 필요하지 않아요?

음. 허락까지 갈 것도 없던데요. 아예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던데.

그럼요?

깡판 쳤어요. 말로만 해서는 안 되는 것 같길래. 무단결석하고, 수업 빼고, 사고도 좀 치고.

퇴학 안 당했네요?

나름 모범생이었거든요. 선생님 말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했었고. 그런 애가 갑자기 그런 거니까, 뭐. 주먹질한 것도 아니고. 근데 퇴학은 안 당했지만? 먹을 육은 다 먹었죠. 이 정도도 못 버티고 도망치면 넌 나중에 아무것도 해낼 수 없는 사람이 될 거다. 힘든 일 생길 때마다 포기할 거냐. 인생, 네 맘대로만 살 수는 없는 거다. 어떻게든 자퇴 말려보겠다고 개소리란 개소리는 다 끌어모아서 박는데, 아니 저런 말들 들으면 오히려 오기 생기지 않나?

그의 입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그렇지 않아 보였다.

1824온라인에세이클럽 '아, 있나?' 005

참금참금

▶▶

05

이번엔 두 달 다녔나. 이번이 일곱 번째일 거예요. 세 달도 못 버티고 그만둔 게. 알바랑 직장 말고도 이것저것 합치면 훨씬 많을 거고요.

너무 힘들어요.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 뭔가 잘못된 게 분명한데 그게 뭔지를 모르겠어. 자퇴를 안 했어야 했나? 죽더라도 버텨야 했을까요? 도망밖에 칠 줄 모르는 사람이 돼버린 것 같아요. 짜증 나. 너무 억울해. 나 진짜 노력 많이 했는데. 뭘 더 어떻게 해야 하는 건데. 이제 좀 뭐가 보여야 뭘 더 해보든가 할 거 아냐 진짜….

위로의 말을 건넬 수는 없었다. 저런 슬픔을 위로하는 법은 배운 적이 없다. 나도 마찬가지로.

다인 씨.

그는 여전히 도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저는 집 밖으로 나온 게 네 달 만이에요. 인생은 포기했는데 아직 목숨은 놓지 못한 상태라고나 할까요. 하루 종일 게임만 하면서 지냈어요. 밥은 술이랑 과자로 때우고요. 하루도 안 취해있던 적이 없고 하루도 해 없을 때 잠든 적이 없어요.

인간관계도 전부 정리했어요. 일방적이긴 했지만요. 찢든 제가 뭐 하고 사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번호도 주소도요.

나는 숨을 깊게 내쉬며 말을 이었다.

그냥. 다들 똑같이 힘든데 다 버티고 사는 거라고

1824온라인에세이클럽 '아, 있나?' 005

참금참금

▶▶

06

그러더라고요. 넌 대체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유난이냐고요.

‘뭐가’ 힘드냐. 이게 간단히는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것도 아닌 사람한테 인생 전부를 설명할 순 없잖아요. 폐 속에 고통이 가득 쌓이고 쌓여서 딱히 무슨 일이 있지 않아도, 그저 하루 종일 숨만 쉬어도 죽을 것 같이 힘든 걸 말예요. 그리고 다들 똑같이 힘든 거 라면요. 왜 저 사람들은 알코올 중독도 아니고, 게임중독도 아니고, 정신과 약도 필요 없고, 인간관계를 다 끊어내지도 않고 힘들어도 결국 털고 일어나서 꾸준히 나아갈 수 있는 건데요? 왜 자해를, 자살 시도를, 자살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건데요. 왜 이 모든 걸 동시에 가지고 있지 않은 건데요. 그래도요. 나도요. 이런 상황임에도 죽도록 노력을 했거든요. 사람들이 뭐라 떠들든 간에 어떻게든 내 삶을 바꿔보겠다고 안간힘을 썼거든요. 끊임없이 무너지면 끊임없이 일어났거든요. 최선을 다했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건요. 이 최선이란 게, 저한테는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어떻게든 힘 짜내 한 노력이어도요. 저랑 함께했던 사람들한테는 피했었다는 거예요. 일이든 뭐든 간에요. 왜냐면 늘 포기하고 도망치니까요. 그러다 무너지는 것에도 지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집에만 있었던 거예요. 일어나면 분명 다시 무너질 테니까. 무너진 채로 있기로 한 거죠.

그의 긴 머리칼이 바람에 살짝 흩날렸다.

1824온라인에세이클럽 '아, 있나?' 005

참금참금

▶▶

07

그래도 목숨 안 놓은 건 대단한 거 같은데. 누가 구해주러 올지도 모르잖아요. 손을 내밀지 동아줄을 내려줄지는 몰라도 잡고 올라갈 힘은 있어야 하니까 남겨놓은 거 아닐까요.

누가요? 아 제가요?

네.

그럼 다인 씨는요?

난 좀만 더해보려고요.

뭘 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혹시 모르잖아요? 진짜 누가 구해주러 올지.

그렇게 되면 진짜 좋겠네요.

그러게요.

1824온라인에세이클럽 '아, 있나?' 005

참금참금

▶▶

08

관심은 없겠지만

골무

무쌍눈에 입 동굴.
오른손잡이. 낮가림.
과거. 사랑. 미래.



1824온라인에세이클럽 '아, 있나?' 005

참금참금

▶▶